

# “신한의 비전 리더로부터... 팔로워 키워라”

**진옥동 신한은행장 유튜브 강연  
‘포스트 코로나’ 리더 역할 강조  
“팔로워 크기가 곧 리더의 크기”**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세상은 B.C. (Before Corona·코로나 이전)와 A.C. (After Corona·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며 선진(先進)과 후진(後進), 즉 일류(一流) 국가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진 행장이 임원 및 본부장과 전국 부서장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 강연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진 행장은 “이제 일류 국가의 기준은 부의 축적이 아닌 공동체의 존속(지속 가능)을 위해 헌신, 절제할 수 있는 시민의 존재 여부가 될 것”이라며 “도태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변화와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 행장은 기업 문화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업 문화로 잘 관리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기업 문화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확한 가치이념 ▲이념이 반영된 문화기동장치(의례와 의식)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리더의 노력과 함께 ▲세 가지 요소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시했다.

진 행장은 “기업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것보다 리더의 행동을 통해 신한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더의 실천을 강조했다.

또 그는 “결국 리더의 크기는 팔로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많은 팔로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82년 7월 7일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 은행으로 설립됐다. 창업자 정신과 기업 문화, 리더의 역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매년 7월 기업 문화를 테마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컬처 위크(Culture Week)’를 신설하고, 첫 번째 순서로 임원 및 본부장과 전국 부서장이 참여하는 ‘리.더.주간(신한과 리더에게 이(利)로움을 더하는 신한문화 주간)’으로 진 행장의 리더십 강연을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호반건설 시그니처 건본주택 외관. /호반건설

## 호반건설

### 당진 호반씨밋 시그니처 아트홀급 건본주택 오픈

호반건설은 ‘호반씨밋 시그니처’ 건본주택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호반씨밋 시그니처’는 충남 당진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당진시에 공급하는 첫 ‘호반씨밋’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규모며, 총 108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 가구 수는 ▲84㎡A 847가구 ▲84㎡B 189가구 ▲84㎡C 48가구다.

건본주택내 카페테리아에서는 음료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실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카페테리아는 층고를 높인 오픈 스페이스로 구현했고, 원색적인 색감의 가구와 아치형 인테리어로 고풍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호반씨밋 시그니처 건본주택에서는 상품의 세부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 구성이 돋보인다. 건본주택 내에는 확장형 침실과 주방에 대한 별도의 전시 부스가 각각 마련돼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분양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 1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고, 계약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수주

**서울 중심부 업무·상업시설 신축  
지하 8층~지상 최고 17층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은 1880억원 규모의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 신축공사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원 9277㎡(약 2800평) 부지에 지하 8층~지상 최고 17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 2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1개월이다.

공평 15·16지구 사업지는 일명 CBD(중심상업업무지구)로 불리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진 오피스 지구



공평 15,16지구 오피스 신축공사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탑골공원, 피맛골, 인사동길 등을 기반으로 한 유동인구가 풍부해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재

개발 신축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정비사업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도시·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고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

한다.

이번에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울산, 청주, 인천, 수원 등을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1조 2782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국내 최대 도심지인 서울 중심부에서 업무·상업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당사가 보유한 높은 건축기술력과 설계·시공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며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미래에셋, 근로공 퇴직연금 대표상품 선정



TDF2025·2045, TIF 3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전략배분 타깃데이트펀드(TDF) 2종과 미래에셋평생소득타깃인컴펀드(TIF)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대표상품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주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와 2045, 미래에셋평생

소득TIF 3종이다. 미래에셋운용은 “외국운용사 위탁이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운용하며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시현 중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의 전체 TDF 운용규모는 8월 기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국내 개별 TDF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의 수탁고는 4848억원으로 2017년 3월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은 22.58%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장은 “미래에셋 TDF와 TIF는 자산배분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스스로 펀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투자자들에게 은퇴자산의 적립에서 인출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하나은행 애자일 랩 참여 연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하나銀-스타트업 협업, 혁신 인재 육성

‘혁신기업 OJT 과정’ 실시  
5곳에 6개월간 직원 파견

하나은행이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원큐 애자일 랩(1Q Agile Lab)에 참여한 스타트업 5곳과 협업해 ‘혁신기업 OJT 과정’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기업 OJT 과정’은 하나은행의 1Q Agile Lab에 참여한 핀다, 마인즈랩, 옴니아스,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자란다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을 6개월간 파견하여 일하며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기존 금융업의 장벽을 뛰어넘어 혁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혁신기업 OJT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소속의 디지털전환(D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 박사들을 멘토·멘티로 매칭해 기술자문,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이베스트투자증권

### 신규 비대면 계좌고객 즉시 혜택 이벤트 진행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는 신규고객 즉시 혜택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시, 타 증권사 주식 이관시, 대출시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신규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지원금 1만원을, 200만원 이상 거래시 추가 4만원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타 증권사 계좌에 있던 상장지수상품(ETP)을 포함한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옮기면 매매 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현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60일동안 신용대출은 2.20%, 담보대출은 3.9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장조건 충족시 회수제한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기간 제한 없는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아직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신용·담보 대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송태화 기자